

478.6배 쏜 신동현...특선급, 신진세력 반란

(23기)

20기 이승철은 특선급 두차례 우승
우수급 강성욱·한탁희 등 신인 강세
선발급선 다양한 전법 선수 돋보여



재개장 이후 주목받는 선수들을 보면 선발급에는 다양한 전법을 구사하는 선수, 우수급에서는 자력승부가 가능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또한 특선급에서는 기존 강자들이 초반 주춤하는 동안 신진급 세력들이 돋보이는 성적을 거두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다양한 전법의 선수가 돋보인 선발급
선발급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친 선수들은 함동주(B1 10기 청평 39세)와 김재훈(B1 23기 성산 31세)을 꼽을 수 있다. 함동주는 갑급 후 첫 회차에서는 그다지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광명 12회차에서 결승까지 모두 우승하며 몸 상태가 좋은 것을 보여줬다. 특히 결승에서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호쾌한 찢히기를 성공해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였다. 앞으로도 다양한 전법을 구사하며 강자다운 면모를 과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재훈 역시 공백기 전에는 서두르거나 타이밍을 놓치며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 못했는데 재개장 이후 탄 신수가 되어 돌아왔다. 올해 출전한 경주에서 모

두 우승을 차지해 곧 우수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자력승부 되는 선수 활약한 우수급
우수급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거둬 이야기하듯 신인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안창진(A1 25기 수성 31세)은 '도장깨기' 식으로 기존 강자들을 제압해 주목을 받았다. 언제든 특선급 진출도 가능한 몸 상태와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강성욱(A2 25기 전주 25세), 한탁희

(A2 25기 김포 27세)의 기세도 매우 뜨겁다. 신인만큼은 아니지만 재개장 이후 눈여겨볼 선수들로 최병길(A2 7기 광주개인 43세), 김형모(A2 14기 수성 38세) 등이 있다.
최병길은 공백기 이전엔 거의 차이를 하다 올해 출전한 6경주 중 4번 삼복승 안에 이름을 올리며 다른 선수들에게 경계대상이 되고 있다. 김형모도 노련한 경주 운영을 선보이고 있는데 창원 14회차 결승에서는 강자 이용희 앞에서 자신감

있는 선형승부로 준우승을 차지해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게 했다.

●신진세력의 급부상, 특선급
특선급에서는 빛을 보지 못했던 신진 세력들이 주목받고 있다. 공백기에도 꾸준히 훈련을 소화한 효과를 보는 것인데, 특히 이승철(S2 20기 상남 32세), 신동현(S2 23기 미원 31세)의 기세가 예상 밖이다. 이승철은 최근 일요일경주에서 연거푸 찢히기에 성공하며 두 차례 우승을 차지했다. 몸상태, 성적, 자신감 세박자가 모두 맞아 들어가는 모습이라 앞으로 절대 강자가 빠진 경주에서 활약상이 기대되는 선수다. 신동현 역시 첫 경주였던 2월 26일 광명 경주에서 타종 이후 적극성을 띄며 선형형을 받아낸 후 추임으로 우승을 차지해 쌍승식 478.6배의 고배당을 선사했다. 이후 우승은 없지만 매 경주 남다른 적극성과 자신감으로 복병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근우 명품경륜 승부사 수석기자는 "그동안 잘 관리한 몸 상태를 바탕으로 성적이 좋아지면서 자신감 넘치는 선수들의 활약이 경륜 판도를 바꾸려 하고 있다"며 "특집이 낮고 인지도가 낮더라도 선수들의 인터뷰, 직전 회차 성적 및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 전략에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경륜·경정, 다시 3주간 STOP 거리두기 단계 상향 따른 조치...“방역활동 집중”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경륜·경정이 다시 한 번 멈추게 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기금조성총괄본부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경륜·경정을 휴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휴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면서 경륜·경정 영업장 소재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다.
앞서 공단은 수도권 이의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2월 19일부터 광명 스피드돔과 미사 경정장에서 무관중 경주를 재개했으며, 부산과 창원 그리고 대전·천안지점은 좌석 수의 20% 인원을 입장하는 부분 재개장을 했다. 경륜·경정 관계자는 “다시 휴장을 하게 되어 아쉽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휴장기간 동안 고객과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휴장은 추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향후 재개장 일정은 확정되는 즉시 언론과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기타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륜·경정 홈페이지와 통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경정 심상철, 어느새 5연승 “나의 11연승 넘는게 목표죠”



심상철

심상철(A1 7기 39세)은 지난 2019시즌 제29회 2일차(12월 26일) 경주부터 11연승을 기록했다. 팬들은 역대 경정 최다 연승을 심상철이 켤 수 있을지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심상철은 2021시즌 제6회 1일차(3월 10일) 경주에 첫 선을 보였다. 6번정을 배정받아 1턴 마크에서 휘감아찌르기를 시도해 첫 번째로 통과하는 듯 보였으나 나병창(A1 7기 46세)의 역주를 이겨내지 못하고 2위에 머물러 12연승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다음 경주에서 1위를 차지하며 다시 한번 연승 기록 도전에 나섰다. 지난주 제10회차(4월 7~8일) 3경주에 출전해 모두 1위를 차지하며 현재 5연승을 기록 중이다. 심상철은 “연승이 끊기고 나니 아쉬움이 많았다. 하지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목표가 생겼으니 새로운 기록을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수진 기자 편집 | 김재건 기자 bong82@donga.com

부진한 경정 1기들 왜?

온라인 스타트 경주 모터에 희비
플라잉 스타트 늘면 노련미 기대



경정 1기를 대표하는 강자인 이태희(A1 50세·6번)가 결승선을 앞두고 전력질주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2021시즌 경정이 순항 중이다.
경주 수가 평소의 절반인 8경주밖에 하지 못한다는 점이 아쉽지만 그럼에도 박진감 넘치는 경주들이 진행되며 비수도권 장외지점을 찾는 팬들이나 경주 동영상을 보는 팬들에게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주고 있다.
시즌 초반 분위기는 온라인 스타트 방식의 경주가 많아 선수 기량보다 모터의 성능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경우가 많았다. 즉 기량이나 경험에 상관없이 좋은 성능의 모터를 배정받은 선수들이 경주의 흐름을 주

도했다는 것이다. 다만 온라인 스타트 경주가 지난주부터 두 경주 줄어들고, 대신 플라잉 스타트 방식의 경주가 늘면서 점점 경주 운영 능력과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현역 최고참인 1기들의 부진이다. 압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성적을 유지하던 노련한 선수들이 시즌 초반 동반 부진에 빠졌다. 현재 159명의 경정 등록 선수 중 1기생이 26명으로 가장 많지만 한진(승률 33.3%, 연대율 50%)과 나병창(승률 50%, 연대율 66.6%)을 제외하고는 딱히 눈에 띄만한 성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선수들이 태반이다.
1기를 대표하는 강자인 이태희(A1 50세)가 올 시즌 1승 밖에 거두지 못했고 광현성(A1 49세), 장영태(A2 46세), 우진수(A2 45세)도 출발은 좋았지만 이후 모두 극심한 부진을 보였다. 1기 강자인 김현태(A2 45세)와 서화모(A2 47세)도 올 시즌 우승을 아직 신고하지 못했다.
반면 2기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2기 선수 중 대표적인 강자인 김중민(승률 66.7%, 연대율 100%)과 김민천(승률 50%, 연대율 83.3%)을 필두로 파죽의 3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손근성(A2 49세) 등이 고른 활약을 펼치며 1기의 부진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시즌 초반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1기 선수들의 모터 배정 운이 좋지 않았던 이유도 있지만 온라인 스타트의 비중이 높았던 탓에 노련한 경주 운영 위주로 풀려가는 1기들의 스타일과 다소 맞지 않았던 이유도 클 것으로 분석된다.
경정 예상분석 전문가들은 “1기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온라인 스타트 경주의 비중이 줄었기 때문에 코스만 좋다면 노련미를 살려 입상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좀 더 존재감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암 보험, 걱정없이 산다

수술한 적 있는 나도
침술이 넘은 나도
(40~75세 가입가능)

당뇨를 달고 사는 나도
암 걸린 적 있는 나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생명보험 협회 임의필재 제 2020-02556호 (2020.09.01) (COM-2020-08-32243)

무배당 꼭 필요한 암보험

(갱신형)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가능

보험금도 든든하게
**일시금
정액지급**

나이가 많아도 (40~75세)	지병이 있어도	수술 병력이 있어도	암에 걸린 적이 있어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	---------	------------	-------------------------------

080-608-1010

스텐가마솥 1개
상담 완료 시
무료 증정!

[이벤트기간: 2021.01.01 ~ 2021.12.31]
 * 필수 후 7일 이내 최소 200 이상 상담 시 이벤트 혜택
 * 배상금 상한선으로 후약 6주 소요 (연 배 상한)
 * 일시금은 지급 누락 면제 초과 지급 제한
 * 본 상품은 소비자 기금에 국한된 보험 상품입니다.
 * 조기 종결 시 다른 상품으로 대해 발송됩니다.

* 가입 후 1일부부터 보장은, 소액암은 가입 첫날부터 보장(최초 1회보장(가입 2년 이내 전단 시 50% 보장) *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100세 까지 보장(갱신 시 보험료 인상될 수 있음) 만기환급금이 없는 손수보장형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유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억원*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력자 및 고연령자 대상 상품으로, 의사의 건강진단이나 일반계약 심사를 받을 경우 더 저렴한 일반보험가입 가능할 당시의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전문 상담원에게 문의해주시고
 *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람니다.
 AA생명보험 주식회사